

트럼프 “러·우 협상 즉시시작” vs 푸틴 “전쟁 근본원인 제거”

트럼프, 푸틴과 두 시간 전화통화 교착상태 종전 협상 돌파구 부족 서방 “트럼프, 평화계획 포기” 혹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약 두 시간에 걸쳐 통화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다 근거 없는 낙관론만 설파했고, 푸틴 대통령은 양보 없이 전쟁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며 “매우 잘 됐다”고 말했다.

또 종전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우크라이나의 재건 등 장밋빛 미래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정작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거나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이 2천명 포로 교환이라는 제한적 결과만 내놓고 끝난 상황에서, 대화가 더 진척될 것이라는 신호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 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고 바티칸이 협상 개최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한 대목에서는 중재자인 미국이 한 걸음 빼는 느낌까지 자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년 2개월 만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얼굴을 맞댄 이스탄불 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재차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던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해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날 대화가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추진 등으로 서방이 자국의 세력권을 위협한 것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해결같이 주장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주장하는 30일간 휴전안은 전쟁으로 이어진 원인을 내버려 둔 채 우크라이나의 재정비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을 러시아는 서방이 압박하는 휴전을 거부하는 논리로 내세워 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진전’이라고 평가하긴 설불러 보인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각서에 대해 “양측이 초안을 만들어 교환한 뒤 복잡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한은 없다. 모두가 빨리 하길 바라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으로서는 시간을 끌기 위한 러시아 특유의 기만술에 불쾌하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지점이다.

두 정상 사이 서로 ‘블라디미르’, ‘도널드’ 등으로 칭했다고 크렘린궁이 소개한 대목에서는 이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약 두 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 통화했다.

연합뉴스

날 통화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자신감도 감지된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접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는 시각으로 이날 통화 결과를 전했다.

타스 통신은 이날 통화를 “희망적인 대화”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서방 매체에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요구에서 멀어졌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를 강조한 것은 즉각적인 휴전을 거부해 온 푸틴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정상의 통화는 휴전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

고, CNN은 “푸틴 대통령은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평화 계획을 포기했다”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러시아와의 무역 기회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한국과 미사일방어기술 공유의사”

“군사·정보당국 협력 채널” 강조

이스라엘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자신들의 세계 최고 수준 미사일 방어망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아비브 에즈라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외무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스라엘의 외교정책 기조가 기존 미국, 유럽 중심에서 나아가 최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군사·정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즈라 차관보는 이러한 협력이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란과 그 대리 세력 간의 뚜렷한 연결에서 나타난 ‘급진 세력’들 간의 연계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각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처지라고 강조한 에즈라 차관보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와 정보 당국을 비롯한 기관들 간의 (협력) 채널, 파이프라인을 개설함으로써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기술을 가까이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즈라 차관보는 “우리가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다중의 방어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은 가까이 공유할 의사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미사일 기술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 협력의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전 요격률이 90%를 넘는 ‘아이언돔’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기든 사야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서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안보 및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으로 파괴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장기 유행 우려”

중화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이날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0명으로 전주 1만6천여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주 확진자 중 1천91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 방콕 확진자가 6천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최다였다.

보건당국은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티라 워라타나트 쉐랄롱꼰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주 연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주에도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이번 유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연중 최대 축제이자 연휴인 4월 송끄란이 확진자 재증증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송끄란 기간에는 이동과 대규모 모임이 많고, 세계 최대 규모의 물 축제가 열린다.

방콕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백신과 병상 확보에 나섰다.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검사를 권고했다.

최근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났다.

홍콩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가량 나왔고,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로 증가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달 들어 확진자와 입원자가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서방 3개국, 이스라엘에 “군사행동 안 멈추면 공동행동”

네타냐후 반발... “트럼프 본받아야”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3개국 정상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19일(현지시간) 엄포를 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네타냐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재개한 군사 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정상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두 국가 해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3개국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구호물자 차단과 이스라엘 내각에서 나온 가자 주민 대규모 이주 주장 발언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필수적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 인도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라며 “최근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이 가자지구 파괴에 절

망한 민간인들이 이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했는데, 영구적인 강제 이주도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 성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는 ‘큰 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영국·캐나다·프랑스의 지도자들은 국경에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한 방어 전쟁을 끝낼 것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구함으로써 (2023년) 10월 7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제노사이드에 큰 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럽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범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